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인내가 있다’. 이것이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경험이고 하나의 형식(패턴)처럼 인식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본문은 이 형식에서 벗어난다. 종은 즉시 응답 받았고 결과가 확인되었다. 무엇이 다를까? 종에게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이다. 여호와와의 사자가 너 보다 앞서 가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주인의 말에 대한 오차 없는 순종.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와 즉각적인 응답.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확실한 응답을 얻는다. 뒤에 남은 것은 경배와 찬송이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 창세기 24:33**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종은 손님이 받는 대접을 마다하고 종으로써 가진 사명을 먼저 수행한다. 자신이 누구의 종이며 왜 왔는지, 어떻게 기도했고 리브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 없이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했고, 기도했고, 응답이 있었다. 종은 이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했다. 확신을 갖고 있는 종은 리브가 가족의 결단을 요구한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 창세기 24:49**

전부를 말한 종은 대답을 기다린다. 이 아가씨를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게 해주시오. 싫으면 싫다고 내게 알게 해 주시오. 그래야 나도 이러든 저러든 할 것이니... 이 말이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저녁 밥도 아직 먹지 않았다.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며 딸 리브가를 데려가게 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와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 창세기 24:50-51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 창세기 24:58**

뜻밖의 만남, 갑작스런 사건이었다. 그러나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과 오라비 라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한다. 종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하고 리브가와 가족들에게 미리 준비한 예물을 전달한다. 만난지 두 세 시간만에 혼인이 성사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은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해질 무렵 만나서 그날 저녁 혼인이 결정되고 다음 날 아침 출발이다. 엄청난 속도다. 리브가의 어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다. 이제 집을 떠나면 다시 만나기 힘든 딸이다. 며칠, 아니 열흘은 더 있다 가라하지만 리브가도 이미 마음을 확정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까.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 창세기 24:58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드라마틱’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엄청난 속도와 결단력, 말 그대로 초-스피드, 일사천리다. 저녁에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리브가도,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이 한 일과 같다. 바로 경배와 찬송이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있는 인내가 힘들어서, 혹은 '내가 인내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했다'며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만났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며 다시 생각해 보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보자. 그 순종 안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자. 종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경배와 찬송이 남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자.